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중국의 ‘고품질 발전’ 전략의 주요 내용 및 전망

KIEP 북경사무소(kucho@kiep.go.kr, Tel: 86-10-8497-2870)



차 례

1. 개요
2. 중국의 고속 성장 과정과 해결과제
3. 고품질 발전 관련 정책 방향
4. 고품질 발전의 세부 목표
5. 평가 및 전망

주요 내용

- 고품질 발전은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가장 먼저 완수해야 할 임무로 강조되었음.
 - 제20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는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제시
 - 고품질 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필수요소인 견고한 실물경제와 높은 기술수준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함.
 - 고품질 발전은 이전에 언급된 질적 성장과 관련된 발전방향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발전전략으로 향후 경제 수준 전반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며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개선했음에도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산업의 질적 성장도 이루며 '고품질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
 - 하지만 소득 불평등, 민간소비 부진, 핵심기술의 해외 의존, 환경오염 등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음
- 고품질 발전은 중국경제의 당면과제를 극복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 정책을 포함함.
 - 내수 확대와 공급측 개혁으로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자립형 경제를 형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 방향을 수립
 - 지속적인 개혁개방을 통해 서비스 분야의 개방 수준을 높이고 첨단기술 도입을 위한 외자 유치를 강화
- 고품질 발전의 세부 목표로는 △국민 행복 실현 △거시경제 안정 제고 △기업 경쟁력 향상 △산업 혁신 제고 △시장화, 법제화 및 국제화 △녹색발전 등을 제시
 - 빈부격차 해소를 통한 공동부유 달성, 산업경쟁력 제고, 제도 정비, 녹색발전 등의 목표를 제시하여 전방위적인 발전을 도모
- 미중 갈등 심화, 인구 고령화 등 대내외 도전 과제 속에서 중국의 고품질 발전이 계획대로 실행될지에 대내외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
 - 중국의 고품질 발전 지속 가능 여부는 향후 미중 갈등을 비롯한 국제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1. 개요

■ 2022년 10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로 지칭)에서 ‘고품질 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가장 먼저 완수해야 할 임무로 강조되었음.¹⁾

- 제20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는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제시
 - 2035년까지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21세기 중엽까지 부강한 국가를 완성할 것을 선언하며 향후 5년을 사회주의 현대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로 규정
- 고품질 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필수요소인 견고한 실물경제와 높은 기술수준을 달성하는 역할을 함.
 -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해서 고품질 발전을 통한 경제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고려
 -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 지속적인 개혁개방, 내수경제 위주의 경제구조 전환 등을 제시

■ ‘고품질 발전’은 2017년 10월에 개최된 제19차 당대회에서 언급되면서 중국경제 성장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²⁾

- 제19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는 중국경제가 고속 성장 단계에서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선언함.
 - 2017년 12월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고품질 발전은 지속적인 경제발전 유지·샤오강사회 전면 건설·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필수 조건”이라 언급하며 중요성을 강조
 - 이는 중국경제가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경제구조 최적화, 성장동력 제고 등의 체질 개선을 위한 최적의 시기에 진입하였음을 의미
- 경제성장 속도 및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는 역대 당대회에서 꾸준히 발표되었음
 - 개혁개방 이후 경제의 고속 성장이 이어졌지만, 에너지·자원·환경적 제약이 점점 커지면서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위한 고민은 지속되어 왔음
 - 2007년 제17차 당대회에서는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지금까지와 다른 질적 성장으로의 경제발전 방식 전환을 목표로 함.
 - 2012년 제18차 당대회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신시대에 맞춰 경제발전의 뉴노멀과 새로운 발전이념을 견지해야 함을 발표
- 고품질 발전은 이전에 언급된 질적 성장과 관련된 발전방향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발전전략으로, 이후 새로운 경제 발전방식으로 채택되어 향후 경제 수준 전반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될 것으로

1) 「中国共产党第二十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2022. 10. 16), 『新华社』.

2) 「刘鹤：必须实现高质量发展」(2021. 11. 24), 『人民日报』.

예상

- 2020년 19기 5중전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고품질 발전이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의 핵심 전략이며, 이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언급함.³⁾

■ ‘고품질 발전’은 개발경제학자 홀리스 체너리(Hollis B. Chenery) 교수의 산업발전이론 중 성숙 발전단계에 해당함.⁴⁾

- 홀리스 체너리 교수의 산업발전이론에 따르면, 한 국가의 경제발전은 고속 성장과 성숙 단계를 거친 후, 삶의 질을 추구하는 발전단계로 진입함
- 고속 경제성장을 경험한 중국이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고품질 발전으로 접어드는 것은 선진국의 경험에 비춰봐도 자연스러운 발전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중앙당교 양치칭 부주임은 경제성장이 안정기에 접어든 19차 당대회 이후가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함.
- 3차 산업의 비중 증가, 도농간·지역간 소득격차 축소, 민간소비 비중 증대 등의 경제구조 전환을 통해 고품질 발전 단계로 접어들면서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평가
- 이는 그동안의 성장방식에서 해결하지 못한 소득격차 등 민생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음

2. 중국의 고속 성장 과정과 해결과제

■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며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규모의 경제대국으로 성장

- 중국의 공업 부가가치는 2010년 미국을 제쳤고, 1인당 공업 부가가치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냄(그림 1 및 그림 2 참조).
- 류허 부총리는 이를 생산잠재력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한 결과로 해석⁵⁾
- 2001년 WTO 가입 이후의 수출주도 성장은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여 공업 부가가치가 고속 성장하는 계기가 됨(그림 1 참조).
- 산업구조도 점차 고도화되면서 2017년에는 3차 산업의 GDP 비중이 50%에 도달하였고, 2차 산업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그림 3 참조)
- 2000년대 2차 산업이 수출주도 성장의 중심이 되었고, UN이 지정한 41개 공업대분류의 모든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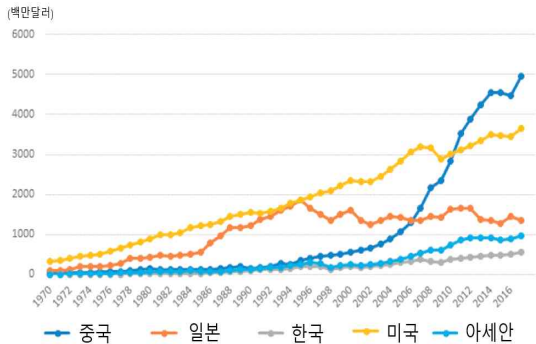
3) 「以高质量发展为主题推动“十四五”经济社会发展」(2020. 12. 26), 『人民日报』.

4) 「陈后清：推动经济高质量发展」(2018. 3. 7), 『国际货币网』.

5) 「刘鹤：必须实现高质量发展」(2021. 11. 24), 『人民日报』.

- 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성장⁶⁾
- 2010년대 이후 2차 산업 비중은 점차 낮아져 종사자 비중도 감소하는 추세이며(그림 4 참조), 서비스업이 중국경제의 주요 산업으로 부상

그림 1. 주요국의 공업 부가가치 추이
(1970~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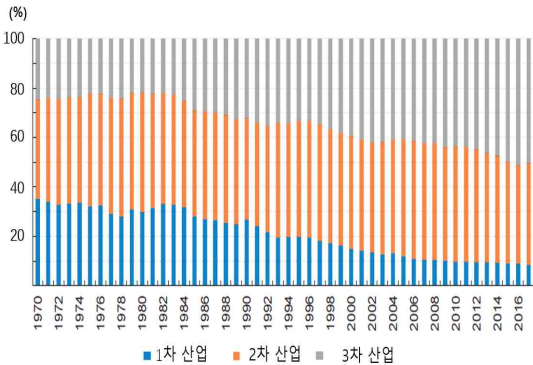
자료: UNCTAD(2022. 1).

그림 2. 중국의 GDP 대비 공업 부가가치 비중
(2004년~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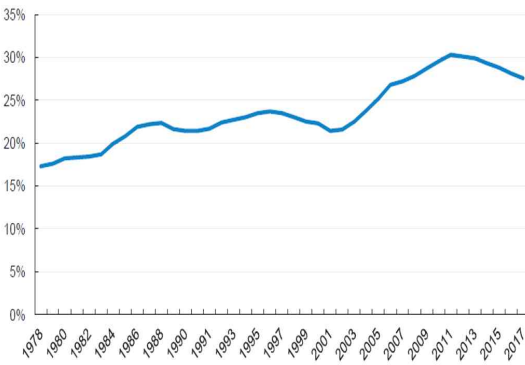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

그림 3. 중국 산업별 GDP 비중 변화 추이
(1970~2017년)



자료: UNCTAD(2022. 1).

그림 4. 중국 2차 산업 종사자 비중 추이
(1970년~2017년)



자료: UNCTAD(2022. 1).

■ 북경대 위마오제 교수는 중국이 빠른 경제성장 과정을 통해 제조업 분야에서 이미 고품질 발전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근거들을 제시함.⁷⁾

6) 「跨国公司在中国：全球供应链重塑中的再选择」(2022. 6), 『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
7) 「余森杰：中国经济高质量发展的新理念与新格局」(2021. 12. 5), 『北大国发院』.

- 중국의 수출에서 자국생산의 부가가치 비중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고부가가치·자본집약적 생산으로 경제구조가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함.
 - 중국 제조업은 단순한 조립 및 가공에서 벗어나 부가가치가 높은 중간재 생산까지 담당하고 있음.
 - 수출방식에서 조립 및 가공을 뜻하는 가공무역의 비중은 1995년 49%에서 2017년 31%로 점점 하락하는 추세
 - 수출 주력품목도 의류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전자제품 등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전환
- 중국 수출품의 품질 개선과 기업 생산성의 향상이 동시에 나타나 중국 기업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음.
 - 중국 수출제품의 품질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30%, 2012년부터 2020년까지 25~30% 가량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이는 중국의 수출품이 꾸준히 질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
 - 중국 기업의 생산성은 2001년, 2015년에 각각 미국 기업의 30%, 45% 수준으로 나타나 생산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경제적 근거는 중국경제가 19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대로 이미 고품질 발전단계로 진입했음을 뒷받침하고 있음.
 - 전 세계 공급망이 글로벌 가치사슬(GVC)로 연결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중국의 공업 부가가치 향상은 제조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도 향상되었음을 의미함.
 - 이는 중국의 고속 성장이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도 동반해왔음을 보여주고 있음.

■ 중국은 고속 경제성장으로 여러 사회 문제를 개선했음에도 여전히 소득 불평등, 민간부문에 취약한 경제구조, 대외 기술의존도 심화, 환경 오염 등의 문제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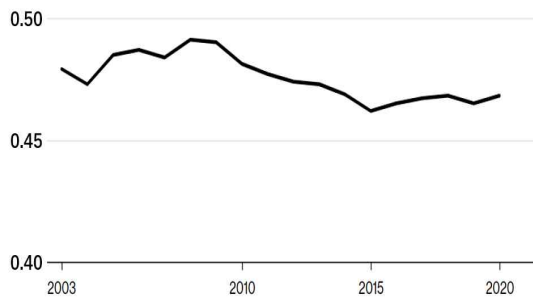
- [소득 불평등] 중국의 소득 불평등은 2010년대 이후 완화되는 추세이지만 주요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⁸⁾
 -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10년 이후 점차 하락하는 추세로 소득격차가 줄어들고 있음(그림 5 참조).
 - 하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소득 불평등 정도는 아직도 높은 수준이며 OECD 등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그림 6 참조).
 - 자산 불평등도 심각한 상황으로 2019년 기준 중국 전 국민 평균 자산은 317.8만 위안이며 상위 10%는 1,511.5만 위안, 하위 20%는 41.4만 위안으로 36.5배 차이를 기록함.
- [민간소비 부진] 중국 GDP에서 민간소비의 비중은 여타 선진국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음⁹⁾
 - 중국의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2019년 기준 39%로, EU(55%), 일본(55%), 미국(68%), 한국(49%) 등에 비해 낮은 수준임(그림 7 참조).

8) 「为什么共同富裕是中国式现代化的重要特征?」(2021. 9. 4), 『经济观察报』.

9) 「经济学 | 双循环新格局下居民消费升级促进我国经济高质量发展的作用机制与实现路径」(2022. 4. 6), 『学术探索』.

- 중국의 도시화율은 증가 추세에 있지만(2000년 35.8% → 2017년 57.9%) EU(76%), 일본(91%), 한국(81%), 미국(82%)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이는 민간소비 활성화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그림 8 참조).
- 노후 대비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미비, 높은 주거비용 등도 민간소비를 늘리지 못하는 부담으로 작용

그림 5. 중국 지니계수 추이
(2003년~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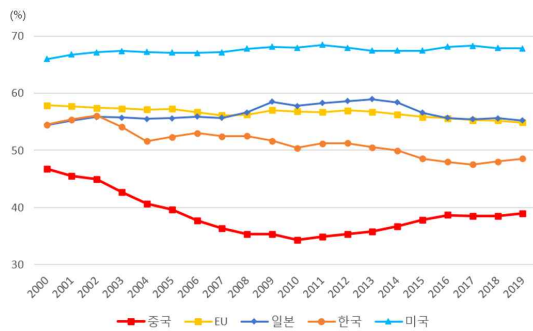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2021. 11).

그림 6. 국가별 소득불평등 수준 비교
(201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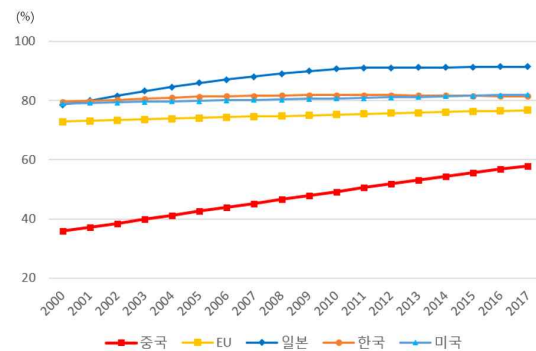
자료: IMF(2018).

그림 7. 주요국의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 추이
(2000~2019년)



자료: OECD Data

그림 8. 주요국의 도시화율 추이
(2000년~2017년)



자료: OECD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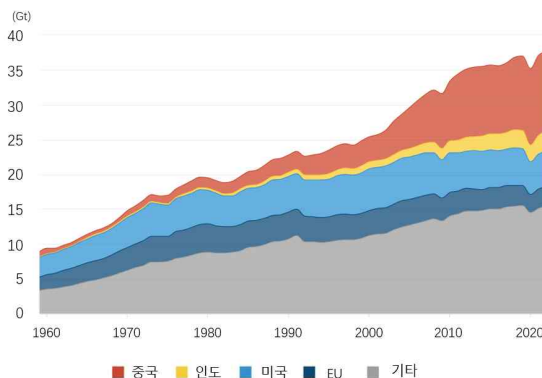
- [해외 기술 의존]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크게 성장해왔지만, 핵심 기술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안정을 지키기에 한계가 있음.¹⁰⁾
- 중간재 수입 후 재가공을 중심으로 수출산업을 키워온 중국은 기술자립도가 낮은 산업구조 하에서

10) 『How the United States marched the semiconductor industry into its trade war with China』(2020. 12), 『PIIE』.

산업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산업고도화가 진행 중이지만 핵심기술 자립은 아직 한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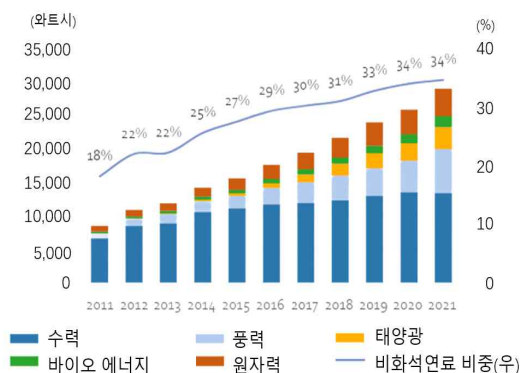
-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장비 산업의 무역적자는 2001년 150억 달러에서 2017년 2,170억 달러로 급증하여 전자산업 분야에서 높은 해외 기술의존도를 단적으로 보여줌.¹¹⁾
- 최근 미중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른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은 2005년부터 이미 최대 반도체 소비국으로 등극하였지만 2020년 반도체 자급률은 15.9%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중국은 2019년 기준 세계 반도체 수출시장의 23%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외국기업에 의해 생산되고 있음.
- [환경오염] 중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늘려가며 친환경 기술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중국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 지위를 유지 있음(그림 7 참조).
- 동시에 비화석연료 발전량 비중을 높이는 등 206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실행하고 있음(그림 8 참조)

그림 7. 주요국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
(1959~2022년)



자료: Carbonbrief(2022. 11).

그림 8. 중국 비화석연료 발전량 및 비중 추이
(2011년~2021년)



자료: 中国能源转型展望(2022. 12).

3. 고품질 발전 관련 정책 방향

■ 고품질 발전은 앞서 언급한 중국경제의 당면과제를 극복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 정책을 포함¹²⁾

- 그동안 경제발전 과정에서 야기된 모순을 해결하고, 고품질 발전을 심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

11) 「China More Dependent on U.S. and Our Technology Than You Think」(2022. 7), 『The Heritage Foundation』.

12) 「刘鹤：必须实现高质量发展」(2021. 11. 24), 『人民日报』.

진

- 류허 부총리는 고품질 발전을 이루는 기본 전제로 △내수확대 △공급측 개혁 △지속적인 개혁개방 등이 필요함을 제시
- 내수 확대와 공급측 개혁은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자립형 경제를 형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요와 공급 모두에서의 노력을 의미¹³⁾
- 개혁개방을 통해 국내 서비스 전 분야의 품질을 높이고, 외국기업의 첨단기술을 확보하여 기술도약을 추구함.

■ [내수 확대] 2020년 5월 14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쌍순환 전략'이 처음 언급되면서 중국의 중장기 발전전략 중 하나로 발전¹⁴⁾

- 쌍순환전략은 내수시장(내순환)과 수출시장(외순환)을 아우르는 표현이며 내수시장 발전에 방점을 두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의미함.
- 내수시장 확대는 대외의존도를 낮춰서 안정적인 경제구조를 갖출 수 있고, 민간소비 증대는 민간의 효용 증대로 이어져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대규모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제품을 유통 및 발전시켜 공급망의 질적 향상도 동시에 가능
- 우수한 품질의 제품 공급은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 다시 내수시장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의 선순환을 촉진
- 쌍순환 전략은 미중 간 갈등의 장기화, 코로나19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내수시장 확대를 통한 성장전략을 의미
- 수요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낮은 민간소비 비중을 끌어올리고, 공급 측면에서 제품 경쟁력 제고를 통해 내수시장을 발전시켜 고품질 발전에 기여함.
- 민간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의 실질소득 증대,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통한 저축률 하락 유도 등의 정책이 전제되어야 함.¹⁵⁾
- 중국의 저축률은 민간소비와 반대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는 미비한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미래소비를 대비하는 심리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음.
- 2022년 12월 14일, 국무원은 <내수 확대 전략 기획강요(2022-2035)>를 발표하여 기존 쌍순환 전략을 재강조¹⁶⁾
- 내수시장 확대는 경제발전, 공급 품질 향상,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고품질 발전을 위한 것임을 재확인함.
- 중국은 신형공업화, 도시화, 농촌현대화 등 선진국에 비해 내수시장이 확대될 기회가 충분하여 성장 잠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

13) 「刘鹤：把实施扩大内需战略同深化供给侧结构性改革有机结合起来」(2022. 11. 4), 『中国青年网』.

14) 「中共中央政治局常务委员会召开会议 习近平主持」(2020. 5. 14), 『新华社』.

15) 「【理响中国】以供给侧结构性改革促进高质量发展」(2022. 12. 14), 『光明网』.

16) 「中共中央 国务院印发《扩大内需战略规划纲要（2022－2035年）》」(2022. 12. 14), 『新华社』.

- 하지만 노동력 부족, 환경규제 등 투자 제약요소가 존재하며 소득격차, 사회보장제도 미비 등의 소비 제약 요소들을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공급측 개혁] 제조업, 금융, 부동산 등 산업 전반의 공급 수준을 높여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실물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고품질 발전의 관건¹⁷⁾

- 공급측 개혁은 2015년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경제 구조개혁의 핵심적인 키워드로 부상
 - 2015년에는 과잉 생산능력 감축, 재고 감축, 레버리지 감축, 취약점 보완, 원가 절감 등을 강조(三去一补一降)
 - 2017년에는 좀비 기업 퇴출, 혁신기업 육성, 생산 원가 절감 등(破, 立, 降)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발표
 - 2018년에는 ‘공고(巩固), 증강(增强), 향상(提升), 원활(畅通)’로 요약된 정책에 시장화 등 다양한 개혁 방향을 포함
- 제조 분야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제조기술을 향상하고 상품의 품질을 높이하고자 함.¹⁸⁾
 - 중국 내 임금 상승 등 생산비용 증가로 제조업의 비교우위가 약화하는 가운데 제조업의 디지털화를 통해 생산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제조업의 디지털화는 물류망 혁신, 반도체 등 첨단기술 발전 촉진 등으로 자국 내 산업망의 외부 의존도를 낮추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
- 금융과 실물경제의 조화를 통해 ‘과학기술 발전-산업기술 향상-금융시장 발전’의 선순환을 추구
 -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제도를 수립하고 간섭하지 않되 어길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建制度, 不干预, 零容忍)’하는 방침을 실행하여 투명하고 개방적인 시장 조성을 추구
- 부동산 시장의 투기세력 근절 등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서민 주택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함.¹⁹⁾
 - 최근 부동산 개혁으로 장기적으로 부동산 기업들이 저부채·저위험·저자산으로 안정적인 성장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기대
 - 앞으로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수준높고 다양한 주택공급이 필요할 전망

■ [지속적인 개혁개방] 고품질 발전을 위해 서비스 분야의 개방 수준을 높이고 첨단기술 도입을 위한 외자유치를 확대²⁰⁾

- 2018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향후 개혁개방이 상품시장 개방에서 제도 및 규범의 개방으로 중심이 이동해야 한다는 새로운 개방의 방향을 제시

17) 「刘鹤：把实施扩大内需战略同深化供给侧结构性改革有机结合起来」(2022. 11. 4), 『中国青年网』.

18) 「用数字化为制造业高质量发展赋能」(2022. 3. 13), 『中国经济网』.

19) 「从“有房住”到“住好房” 房地产行业转向高质量发展」(2022. 9. 24), 『凤凰网』.

20) 「从全面开放走向制度型开放」(2021. 12. 30), 『中国经济时报』.

- 2021년 14차 5개년 계획에서는 이를 ‘제도형 개방’으로 명시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서비스업의 개방을 포함하며 정보통신, 교육, 금융,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방이 확대되고 있음.
- 외국인투자 금지 품목 리스트인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 강화
- 자유무역구를 제외한 전국범위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7년 63개에서 2021년 31개로 매년 축소되어 왔음.
- 14차 5개년 계획에서는 첨단기술 분야의 외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외국기업의 국가 과학기술 프로젝트 참여도 지원하기로 함.

4. 고품질 발전의 세부 목표

■ 류허 부총리는 고품질 발전 목표로 △국민 행복 실현 △거시경제 안정 △기업 경쟁력 향상 △산업 혁신 제고 △시장화·법제화·국제화 △녹색발전 등을 제시함.²¹⁾

- 고품질 발전은 중국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신발전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여섯 가지 세부적인 목표를 제시
- 이는 혁신, 조화, 개방, 녹색, 공유 등 2015년 18기 5중전회에서 제시한 5대 발전이념에 부합하는 목표임.

■ [국민 행복 실현] 고품질 발전은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공동부유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국민은 소비 및 생산의 주체로서 생활 수준 향상은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짐.
- 고품질 발전을 통해 경제 수준을 향상하고 합리적인 소득분배를 통해 공동부유를 실현
-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인적자본 향상 및 소비시장 확대는 다시 고품질 발전을 촉진함.
- 공동부유는 2020년 제19기 5중전회에서 “전 인민의 공동부유 실현”이라는 중장기 목표 제시 후 핵심 과제로 급부상했음.
- 2021년 8월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고품질 발전을 통해 공동부유를 추진할 것을 언급
- 공동부유는 전 인민의 풍요로운 생활 수준 달성 및 소득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함.

21) 「刘鹤：必须实现高质量发展」(2021. 11. 24), 『人民日报』.

- 저장대학 리스 교수는 정부에서 발표한 공동부유 중장기 목표를 구체적인 목표 수치로 정리함 (표 1 참조).²²⁾
- 2035년에는 2020년 1인당 GDP의 2배, 2050년엔 다시 3.75배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과 공공서비스 수준에서도 2050년 선진국 수준 도달을 목표로 제시

표 1. 공동부유 달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

연도	소득 수준	자산 수준	기초 공공서비스
2035년	2020년 1인당 GDP의 2배 달성	1인당 평균 자산규모 17만 달러 달성	선진국 중간 수준 도달
2050년	1인당 GDP 4.2만 달러(2019년 가격 기준) 달성 (2020년 1인당 GDP의 3.75배 수준)	1인당 평균 자산규모 31만 달러 달성	선진국 수준 도달

자료: 李实(2021).

■ [거시경제 안정] 고품질 발전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거시경제 안정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경제의 순환주기로 인해 국가경제는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고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거버넌스 시스템이 필요
- 경기 변동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순환주기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고품질 발전을 통해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공급망 안정 △부동산 유동성 등 신용위험, 지방정부 부채 등 위험요소 해결을 통하여 거시경제 안정을 확보해야 함.²³⁾

■ [기업 경쟁력 향상] 고품질 발전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공급망 안정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함.

- 시진핑 주석은 기업의 고품질 발전은 중국경제 고품질 발전을 위한 미시적 기초라 언급하며 기업 경쟁력 제고를 독려²⁴⁾
- 장중샹 천진대 교수는 일본과 한국의 경제성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등장으로 가능했다고 평가하면서, 중국은 아직 글로벌 수준의 기업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²⁵⁾
- 그동안 중국 내 FDI 유치는 중국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지만 그 결과 산업 핵심기술은 여전히 외자기업에 의존하는 환경이 조성됨

22) 李实. (2021). 「共同富裕的目标和实现路径选择」, 『经济研究』(11月), pp. 4-13.

23) 「【宏观】坚持高质量发展, 持续增强宏观经济稳定性」(2021. 11. 26), 『牛王集团』.

24) 「企业当在高质量发展上奋勇争先」(2022. 2. 14), 『人民日报』.

25) 「张中祥: 产业链安全、关键核心技术与碳中和」(2022. 3. 8), 『今日头条』.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미중 갈등과 같은 외부충격으로부터 산업 공급망의 안정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지적
- 기업 측면에서는 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 친환경 생산기술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함.
- 중국사회과학원 거시정책연구실 평후밍 주임도 중국의 대기업들이 규모는 크지만 글로벌 경쟁력이 약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국유기업 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언급²⁶⁾
- 중국은 세계 500대 기업에 드는 국유기업이 많지만 대부분 혁신적인 리더십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 국유기업 개혁을 통해 국유기업들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시장 경쟁에 참여해야 더욱 경쟁력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음을 강조

■ [산업 혁신 제고] 혁신적인 과학기술 발전은 미중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고품질 발전의 핵심적인 목표 중 하나

- 시진핑 주석은 ‘혁신’을 현대화국가 건설의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하며 고품질 발전이 곧 혁신을 원동력으로 하는 발전전략이라고 언급함.
- 혁신은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고 국제정세에서 살아남게 하는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과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
- 이를 위해 정부·기업·대학이 함께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혁신적인 제조업 육성을 시도하고 있음²⁷⁾
- 정부는 기업과 대학의 혁신 활동에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
- 기업은 대학의 혁신연구에 자본을 제공하고 연구성과가 실제 산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
- 대학은 인재육성과 사회의 요구에 맞는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위해 기업과 협력해 나가야 함.

■ [시장화·법제화·국제화] 고품질 발전은 시장화·법제화·국제화의 상호보완을 통해 성숙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²⁸⁾

- 20차 당대회 업무보고는 고품질 발전을 통해 재산권 보호, 공정 경쟁 등 시장경제 제도 개선과 시장화·법치화·국제화를 통한 일류 경영 환경 조성을 언급함.
- 시장경제체제 강화로 시장 통합을 유도하고, 법치화로 재산권 보호와 공평한 경쟁을 강화하며, 국제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
- 기업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각 경제 주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6) 「【宏观】坚持高质量发展，持续增强宏观经济稳定性」(2021. 11. 26), 『牛王集团』.

27) 「创新驱动制造业高质量发展」(2022. 11. 11), 『光明日报』.

28) 「营造市场化、法治化、国际化一流营商环境」(2022. 11. 22), 『人民日报』.

■ [녹색발전] 고품질 발전은 녹색발전을 우선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통해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함.²⁹⁾

- 시진핑 주석은 여러 차례 “푸른 물과 산이 바로 금수강산”(绿水青山就是金山银山)이라는 표현을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
- 중국은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제품개발 등 환경 분야에서 상당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왔음
 - 2016년 기준 전 세계 친환경 설비 공급에서 중국은 태양광 모듈의 70%, 풍력터빈의 44%, 리온배터리의 38%를 차지하여 모두 세계 1위를 달성³⁰⁾
- 중국은 환경오염 정화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21년 대기 및 수질오염 정화 관련 예산은 각각 275억 위안, 217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각각 10%, 10.2% 증가한 수치

5. 평가 및 전망

■ 미중 갈등 심화, 인구 고령화 등 대내외 도전 과제 속에서 중국의 고품질 발전이 계획대로 실행될지 대내외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³¹⁾

-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가 점차 전 방위적인 압박으로 나타나면서 중국이 단시간 내에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음³²⁾
 - 미국은 중국의 유력 반도체 업체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거나, 동맹국에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설비 반입을 자제시키는 정책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
- 중국의 고령화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도농 간 격차를 더욱 확대하여 고품질 발전 전략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젊은 노동력의 유출을 겪는 농촌에서는 산업을 유지하기 어렵고 이는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최근 코로나19 충격 여파로 인한 수요 부진은 고용과 산업발전에 장기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2035년에 중국 정부가 공언한 2020년 1인당 GDP의 두 배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5년까지

29) 「让绿色成为高质量发展的底色」(2021. 3. 9), 『人民日报』.

30) 「BENCHMARKS OF GLOBAL CLEAN ENERGY MANUFACTURING, 2014-2016」(2021. 1), 『CEMAC』.

31) 「Xi Jinping's drive for China's high-quality development faces population, social capital balancing act」(2022. 10. 20), 『South China Morning Post』.

32) 「US to add Chinese chipmaker to trade blacklist」(2022. 12. 14), 『Financial Times』.

연평균 4.7%의 성장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충격이 장기화되면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함.

■ 중국의 고품질 발전 지속 가능 여부가 향후 미중 갈등 및 글로벌 패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 미국의 압박 속에서 중국이 첨단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는 향후 양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에도 중요 요소로 작용할 것임.
- 중국의 고품질 발전 전개 방향은 앞으로도 국내외에서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변수 중 하나로 부상 **KIEP**

[참고자료]

1. 중문 참고자료

- 「陈后清：推动经济高质量发展」, 2018. 『国际货币网』(3. 7).
- 「中共中央政治局常务委员会召开会议 习近平主持」, 2020. 『新华社』(5. 14).
- 「以高质量发展为主题推动“十四五”经济社会发展」, 2020. 『人民日报』(12. 26).
- 「让绿色成为高质量发展的底色」, 2021. 『人民日报』(3. 9).
- 「为什么共同富裕是中国式现代化的重要特征?」, 2021. 『经济观察报』(9. 4).
- 「刘鹤：必须实现高质量发展」, 2021. 『人民日报』(11. 24).
- 「【宏观】坚持高质量发展，持续增强宏观经济稳定性」, 2021. 『牛王集团』(11. 26).
- 「余淼杰：中国经济高质量发展的新理念与新格局」, 2021. 『北大国发院』(12. 5).
- 「从全面开放走向制度型开放」, 2021. 『中国经济时报』(12. 30).
- 「企业当在高质量发展上奋勇争先」, 2022. 『人民日报』(2. 14).
- 「张中祥：产业链安全、关键核心技术与碳中和」, 2022. 『今日头条』(3. 8).
- 「用数字化为制造业高质量发展赋能」, 2022. 『中国经济网』(3. 13).
- 「经济学 | 双循环新格局下居民消费升级促进我国经济高质量发展的作用机制与实现路径」, 2022. 『学术探索』(4. 6).

- 「从“有房住”到“住好房” 房地产行业转向高质量发展」. 2022. 『凤凰网』(9. 24).
- 「中国共产党第二十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2022. 『新华社』(10. 16).
- 「刘鹤：把实施扩大内需战略同深化供给侧结构性改革有机结合起来」. 2022. 『中国青年网』(11. 4).
- 「创新驱动制造业高质量发展」. 2022. 『光明日报』(11. 11).
- 「营造市场化、法治化、国际化一流营商环境」. 2022. 『人民日报』(11. 22).
- 「中共中央 国务院印发《扩大内需战略规划纲要（2022－2035年）》」. 2022. 『新华社』(12. 14).
- 「【理响中国】以供给侧结构性改革促进高质量发展」. 2022. 『光明网』(12. 14).
- 「跨国公司在华：全球供应链重塑中的再选择」(2022. 6), 『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
- 李实. 2021. 「共同富裕的目标和实现路径选择」. 『经济研究』(11月) pp. 4-13.

2. 영문 참고자료

- 「US to add Chinese chipmaker to trade blacklist」. 2022. 『Financial Times』(12. 14).
- 「Xi Jinping's drive for China's high-quality development faces population, social capital balancing act」. 2022. 『South China Morning Post』(10. 20).
- 「BENCHMARKS OF GLOBAL CLEAN ENERGY MANUFACTURING, 2014-2016」(2021. 1). 『CEMAC』.
- 「China More Dependent on U.S. and Our Technology Than You Think」(2022. 7). 『The Heritage Foundation』
- 「How the United States marched the semiconductor industry into its trade war with China」(2020. 12). 『PIIE』.

자료 정리: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김동현
(brenze1@naver.com)